

마음편의점 · 1인가구지원 관련 일본 매체 보도

[싱글스타일 알아보기] 한국서 확산 중인 ‘1.5가구’

([シングルスタイル・知る]韓国「1.5世帯」広がる, 9.10. 일본 요미우리신문, 전문번역)

<https://www.yomiuri.co.jp/life/singlestyle/20260909-GYT8T00192/>

매 체 개 요

▶ 매체명 : 요미우리신문 (<https://www.yomiuri.co.jp>)

▶ 특 징

- 일본 3대 신문 중 하나로, 일본 최대 부수 발행중('26년 기준, 일일 약 525만부)
-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

読賣新聞



외로움 대책으로 설치된 ‘마음편의점’의 간판

이번에는 해외의 1인 생활을 살펴본다. 전통적으로 가족 간 유대를 중시해 온 한국에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주 들리는 말이, 혼자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1.5가구’라는 생활 방식이다. 청년들이 생활하는 서울 시내의 한 주거 공간을 찾아가 봤다.

Ⅰ 필요할 때 사람들과 교류하는 1인 생활

Ⅱ ‘코리빙’

서울 시내 대학가에 있는 16층짜리 건물에는 ‘코리빙’이라 불리는 주거 시설이 있다. 건물에는 개인실 3개가 주방과 샤워실,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유닛이 57개 있다. 3인용 셰어하우스가 여러 개 들어서 있는 것과



코리빙 주거 공간의 상당히 간소한 개인실

비슷하다. 개인실은 침대와 책상, 선반만으로도 꼭 찰 정도의 크기다. 그 외에 1인실도 있으며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화감상실과 헬스장,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 사는 직장인 정하늘 씨(26)는 “혼자 살고 싶지만 외톨이가 되기는 싫어서 이곳에 왔다”며 미묘한 감정을 표현했다. 대학 시절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정 씨는 취업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 혼자 살게 됐다. 정 씨는 “(기숙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생활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만의 공간도 있는 생활’이 좋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안도감도 있다고 한다.



주민 공용 도서관에서 책을 손에 든 정 씨.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도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방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리빙 입주민끼리 사귀다 결혼한 사례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 씨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라며 웃었다.

이곳은 한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맹그로브’가 운영한다. 서울 시내 네 곳에 있으며, 2인실을 갖춘 곳도 있다. 모두 거의 만실이다.

입주민 간의 교류를 돕기 위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맹그로브가 운영하는 또 다른 코리빙 시설에 사는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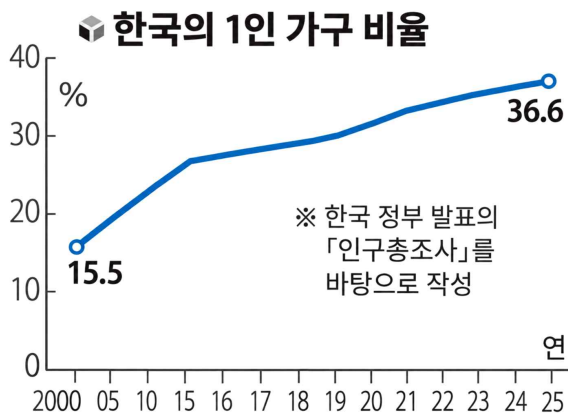
주민 공용 공간에 앉아 '안도감이 든다'고 말하는 장 씨

장부원 씨(25)는 입주민과 함께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그는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른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기뻐했다.

코리빙은 2010년대 후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점차 확산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급증해 2025년 전체 가구의 36.6%에 달했다. 2000년에는 15.5%에 불과했다.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하다 보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시됐던 점을



감안하면, 혼자 사는 데서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코리빙은 그런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거 형태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대용량 식품을 나누는 등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1인 생활 방식을 ‘1.5가구’라고 부른다.

Ⅱ 배경에는 주거 문제

맹그로브가 코리빙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 중 하나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이다. 입주 보증금은 300~500만 원, 월세는 방에 따라 다르지만 7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1인 거주용 아파트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가구와 가전제품을 준비하는 관습도 일부 남아 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6억 원에 달했다.

올해 조선일보가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 청년층(기혼자 포함)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4%가 “결혼은 경제적 부담의 시작이며 가계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혼인 건수는 2005년 약 31만 건에서 2025년 약 24만 건으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여온 합계출산율은 같은 해 0.80명으로 전년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91~1995년생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1인가구지원센터’

아니라 1인 가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요리 교실에 참여한 30대 직장인 박진영 씨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참가자들과 부담 없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Ⅰ 외로움 대책 ‘마음편의점’

인구의 약 절반이 집중된 서울은 2025년 기준 전체 가구의 40.5%가 1인가구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시내 25곳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생활 상담을 받을 수 있을뿐

말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음편의점'에서 휴식을 취하는
인근 직장인들

이와 함께 서울 시내 19곳에는 고립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음편의점'이라는 시설이 있다. 편의점의 취식 공간처럼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어 가볍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마음편의점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5%가 이용 후 외로움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외출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도 59.8%에 달했다.

■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



가족 정책 전문가인 진미정 서울대 교수에게 물었다.

—'1.5가구'의 생활 방식을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은 독립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한편,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도 큼니다. 젊은 시절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동 주거를 경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적은 중장년 1인가구는 취약성이 높습니다”

—가족관이 달라진 것인가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관은 부계 중심입니다. 설이나 추석에 친가에 친척들이 한데 모여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만 음식을 준비하는 것 등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늘면서 최근에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만 설이나 추석에 모이는 경우도 많아 새로운 가족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닌)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보는 유연성이 커지고, 가까운 가족 간의 친밀도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고, 저소득층과의 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 [취재 후기] 자신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 쓰는 사람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지인인 40대 한국 여성은 설 등에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결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에서는 가족관과 생활 방식 또한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1.5가구 역시 이런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생활 방식일 것이다.

[シングルスタイル・知る] 韓国「1・5世帯」広がる

2026/09/10 05:00

 [読者会員限定]

 保存して後で読む  シェアする

依田和彩



孤独対策として設置された「心のコンビニ」の看板

今回は外国のひとり事情を。伝統的に家族のつながりを重視してきた韓国で、単身世帯が増えている。そんな中、最近耳にするのが、ひとり暮らしをベースに、他人と必要な時だけつながる「1・5世帯」というスタイルだ。若い人たちが暮らすソウル市内の住まいを訪ねた。

(ソウル 依田和彩、写真も)

必要な時に人とつながる单身生活

「コリピング」

ソウル市内の学生街にある16階建てのビルに「コリピング」と呼ばれる住居がある。建物内には、個室3室に共用の台所とシャワー、トイレがついたユニットが57ある。3人用のシェアハウスがたくさん入っている感じた。個室はベッドと机、棚だけでいっぱいになる広さ。ほかに1人用の部屋もあり、住人は誰でもシアタールーム、ジム、図書室などが利用できる。

その一室に住む会社員、鄭^{チョン}ハヌルさん(26)が「ひとり暮らしはしたいけれど、ひとり嫌だからここに来ました」と、微妙な気持ちを表現した。学生時代には寮生活を経験し、就職を機に故郷を離れてひとり暮らしをすること

[PR]



コリピング住居の個室。かなりコンパクトだ



住民共用の図書室で本を手にする鄭さん。「ここでは他の人とも交流できるので、素敵な人々に出会えた」



住民の共用スペースに座る張さん。「安心感があります」と話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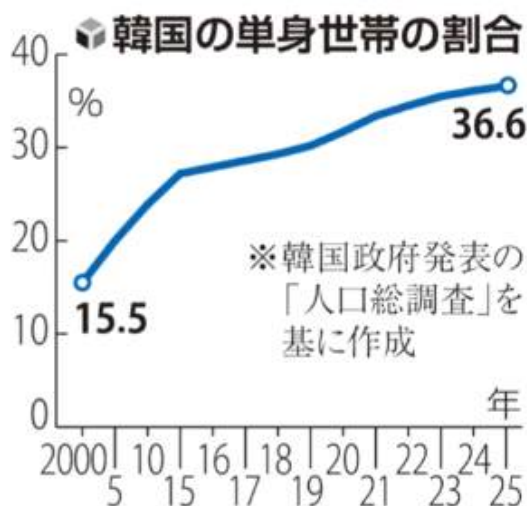
になった。「(寮で) 他人と密着して暮らした結果、『少し人と密着する部分もあるけれど自分だけの空間も持っている』というのが良いと確信しました」と選択の理由を話す。困り事があった時に、ひとりではない安心感がある。

台所を共有する2人とはつかず離れず。コリピングの住人同士が恋愛し、結婚したケースもあるというが鄭さんは「私は興味がない」と笑う。

運営は韓国のデベロッパー「マングロープ」。同市内4か所で運営し、2人部屋があるところもある。いずれもほぼ満室だ。

入居者の交流を促進するため、自由参加の体験教室も開く。同社運営の別のコリピングに暮らす女優の張富媛さん(25)は、一緒に映画を見るプログラムなどに参加する。「参加者同士で話すうちに連絡先を交換し、他のイベントと一緒に参加する仲になりました」とうれしそうだった。

コリピングは2010年代後半に大手不動産会社が参入して徐々に広がってきた。



韓国国家データ庁によると、単身世帯は急増して25年には36・6%に達しているが、00年には15・5%にすぎなかった。家族のつながりが強く少し前までは「結婚するまで実家暮らし」が当たり前だったと考ええると、ひとり暮らしは解放感半分、人恋しさ半分、という若者が少なくないのかもしれない。コリピングはそんな人たちの心をつかんだのだろう。

こうした住まいや、ネットで知り合った同士が大容量の食品を分け合うなど、必要な時だけ人とつながる单身生活を「1・5世帯」と呼ぶ。

背景に住宅問題

マングローブがコリピング住居を運営する狙いの一つは、若者の住宅問題の解決だ。入居時の保証金は300万～500万ウォン（約34万～57万円）、月額賃料は部屋にもよるが70万ウォン（約8万円）台から。ひとり暮らし用アパートに比べると安い。

高騰する物価や不動産価格が、若者が結婚を諦める一因になっているという指摘がある。韓国では結婚の際、男性が住居、女性が家具や家電を用意する風習も一部に残る。だが、先月のソウルのマンション平均売買価格は16億ウォン（約1億8000万円）だ。

今年、主要紙・朝鮮日報が金融機関と共同で行った若者（既婚者を含む）の意識調査では、45・4%が「結婚は経済的な負担の始まりで、家計の安定に大きな脅威になる」と答えた。

婚姻数は05年に約31万件だったが、25年には約24万件に。同様に下降している合計特殊出生率は同年0・80。前年より0・05ポイント上がったが、第2次ベビーブームの1991～95年生まれの人たちの結婚や出産が増えたためとみられている。

孤独対策「心のコンビニ」



ソウル市が運営する「一人世帯支援センター」

人口の約半数が集中するソウル市は、40・5%が単身世帯だ（2025年）。市は20年以降、市内25か所に「一人世帯支援センター」を設置した。生活相談ができるほか、単身者がつながるきっかけにと、料理教室などのプログラムもある。料理教室に参加した30歳代の会社員、^{パ・チンヨン}朴珍英さんは「他のプログラムにも参加して他の参加者と緩やかなつながりを持ちたい」と話した。



お昼に「心のコンビニ」をのぞくと、近くで働く人たちがくつろいでいた

また、市内19か所に、孤立対策の一環でできた「心のコンビニ」という施設がある。コンビニのイートインスペースのように、即席麺を作って食べられる場所もあり、ちょっとした憩いの場になっている。

市が心のコンビニ利用者301人に聞くと、56・5%が利用して孤独感が減少したと回答し、外出回数が増えた人が59・8%いた。

伝統的家族観に変化



家族政策に詳しいソウル大の^{チンミジョン}陳美静 教授＝写真＝に聞いた。

——「1・5世帯」の暮らしをどう見ますか。

「若者は独立性や自立性を持ちたい一方で、情緒的なつながりや親密さに対する欲求も大きい。若い時にシェアハウスのような暮らしの経験があれば、年齢を重ねても他人と関わりながら生活できる可能性があります。こうした経験が少ない中高年の単身世帯は^{ぜいじふく}脆弱性が高いです」

——家族観は変わったのでしょうか。

「韓国の伝統的な家族観は父系中心です。旧正月や「^{チュソン}秋夕」と呼ばれる旧盆に、父方の家に親戚が大勢集まって祭事を行う風習が現在も一部に残っています。でも、女性だけが料理の支度をするなど疑問を感じる人も増え、近年は祭事を行う家庭は5割に満たない。近い家族だけで旧正月や旧盆に集まるケースも多く、新しい家族文化が形成されつつあります」

——家族の未来は。

「結婚や出産を（必須ではなく）選択肢の一つと考える柔軟性が高まり、近い家族同士の親密さが高まるでしょう。所得が高いほど結婚や出産を選び、低所得層との二極化も広がるとみえています」

「あとかき」若い世代 自分の価値観重視

韓国で暮らしていると、自分が周囲からどう見られているのかを気にする人が多いと感じる。一方で、若い世代になるほど、自分の価値観を大事にする傾向が強まっているように思う。

知人の韓国女性（40代）は結婚する際、旧正月などに夫の実家に行かなくてもよいことが条件だったという。移り変わりの激しい韓国では家族観も暮らし方も、急速に変化していきそうだ。1. 5世帯も、変化を模索する中で生まれたスタイルだろう。（依田）

関連ワード